

해방이후 국내 영어학연구의 집대성

趙成植 외 역음 「英語學辭典」

국내 영어학계의 숙원사업이던 본격 영어학 사전이 출간됐다. 화제의 책은 지난 84년 착수해 6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英語學辭典」(신아사)으로 그 방대한 규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국내의 제반 연구이론의 집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언어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작업과 함께 구조주의 언어학, 문법소론, 변형생성문법, 생성문법, 격문법 등 주목할만한 이론들이 제시되면서 영어학도 많은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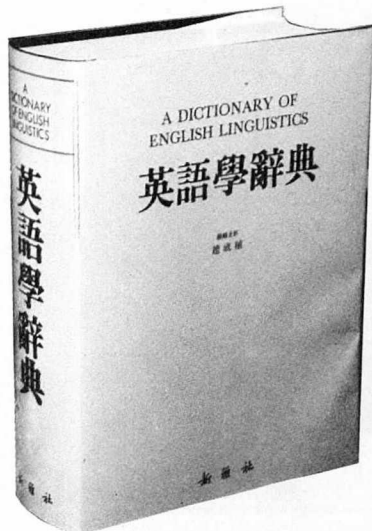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이르러 영어학은 영어라는 개별언어의 범위를 넘어 사회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과의 학제적 연장선상에서 상호 영향력을 미치며 연구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영어학사전」은 영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기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도 언어의 보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언어학사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그 구성에 있어서도 영어사, 전통문법, 음성학, 음운론, 교수법 부분에서는 영어의 고유특성에 기준한 서술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해 의미론, 화용론, 화행론, 통사론, 논리학 부문에서는 언어학적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전의 종합적 성격은 176명에 이르는 집필진의 면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영어학계 제1세대를 이루는 원로학자 조성식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가 편집주관을, 이용재교수(고려대)가 편집총무를 맡아 작업을 진행했는데, 각 부분별로 책임편집위원을 구성해 내용의 전문성을 기했다.

조병태(서울대 / 전통문법), 장석진(서울대 / 신언어학), 전상범(서울대 / 음성학·음운론), 양동휘(서울대 / 통사론), 이기용(고려대 / 의미론), 이익환(연세대 / 의미론), 이기동(연세대 / 문법론), 조성식(영어사), 이맹성(서울대 / 교수법), 조운제(고려대 / 시학·문체론·수사법) 교수를 비롯해 관련 중견학자들과 박사과정 이상의 소장학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영어학 및 언어학 제반성과를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있다.

특히 대폭적으로 집필에 참여한 30, 40대의 신진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신선한 감각과 왕성한 필력으로 이번 사전편찬의 보이지 않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6배판 총 1천7백26쪽에 이르는 이 사전에 수록된 항목은 2700여개. 각 항목의 선정은 이번 사전발간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친 부분으로, 이미 해당 학설과 정의 등이 합의되어 통용되고 있는 전통영문법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는 술어의 언어학적 의미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 상이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반 언어이론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 작업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편집위원회측은 각 술어의 언어학적 의미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독립항목과 독립항목의 하위항목을 결정하고, 용어(terminology)가 다르더라도 동일개념인 것은 중복을 피해 전후 참조(cross-reference)형식으로 처리했다.

내용의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한 항목을 주제로 하여 논문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술어의 정의·역사 및 개관, 용법과 용례 및 종류, 제학설과 문제점 등의 순으로 해설돼 있다. 술어의 정의와 학설의 기술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전을 명시하여 술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으며 해당 항목의 말미에 필자명을 명기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전은 본문 이외에도 「명저해제」부분을 첨가해 예스페르스, 블룸필드, 촘스키 등 영어학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저 122권을 엄선하여 해제를 붙임으로써 관련 전공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편에서는 본문 필자의 참고문헌 서지는 물론 구미학계에서 지금까지 간행 또는

초기 정통문법에서

최근의 변형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총 2천 7백여개 항목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이 사전은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 제반 연구이론을

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학 및 언어학계의 자체적

공동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발표된 주요 문헌을 망라하고 있으며, 국내참고문헌의 경우 14개의 중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60년대 이후 90년까지의 박사학위논문을 수록했다. 이밖에도 사전에 사용된 중요 술어

의 영향용어대조표와 색인도 첨가했다.

이 방대한 「役事」를 주관한 조성식 교수는 이 사전이 “국내 영어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저작물로 언어학에 관한 한 다분히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해방 이후 영어학계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수렴, 내용에 있어서는 초기 전통문법에서 최근의 변형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필진에 있어서는 원로학자에서부터 소장학자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한 이 사전은 무엇보다도 국내 영어학계는 물론 언어학계의 자체적 공동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갖는 각별한 의미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작업의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정소연 기자

주제별 국어학 연구사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1950년대 이후 국어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우리말 연구와 후진양성에 정진해온 이기문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회갑기념 논문집이 출간됐다.

서울대 제자인 국어학 전공 현직교수 58명이 표기·문자·음운·문법·어휘·비교언어학 등 총 60개의 주제를 선정해 각 항목별로 나누어 집필한 이번 논문집은 그동안 국어학 연구에 있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사적 성과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국어학 전반을 망라한 ‘주제별 국어학 연구사’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사 논문집이 갖는 방대한 참고문헌의 소개로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전4부로 구성, 제1부에는 이승재 교수(성심여대)의 「자음체계 및 중화」·송철의 교수(단국대)의 「자음동화」·한영균 교수(울산대)의 「불규칙활용」 등 주로 국어표기와



음운에 관한 15편의 논문들이, 제2부에는 김창섭 교수(전북대)의 「복합어」·안명철 교수(대구대)의 「보조동사」 등 국문법에 관한 29편의 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제3부에는 김규철 교수(육사)의 「한자어」·이병근 교수(서울대)의 「사전 및 사전학」 등 어휘에 관한 8편의 논문이, 제4부에는 송기중 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비교연구: 국어와 북방민족어」·최명옥 교수(서울대)의 「방언」을 비롯한 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동아출판사 / B5변형 / 692면 / 12000원